

136다누리호 어선사고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3일(월) 밤, 대만 북동방 약 98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 136다누리호 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“외교부, 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주변국의 구조 세력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국적 선박에 구조활동 참여를 요청하여 안전에 철저히 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현재, 승선원 10명 중 6명을 구조하고, 해양경찰청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구조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5.2.3.(월) 밤, 대만 북동방 약 98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 136다누리호 전복

* 136다누리호(48톤), 10명 승선

△ (22시 37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경계” 발령

△ (현재 피해현황) 10명 중 6명 구조 중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50)
		담당자	사무관	이강은 (044-200-5526)